

“세계 최고의 라벨 인쇄기 만들자”

전임직원 구슬땀

지난 7월24일 라벨인쇄기 및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서울정기가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하는 ‘2003 대한민국 이머징 우수기술상’에 선정됐다. 이 상은 독창적인 기술개발로 한국을 대표할 만한 기술을 보유한 이머징(emerging) 기업을 선정, 시상하는 제도로 올해는 정보기술, 전자, 전기, 기계, 생활용품, 식음료 등 6개 부문에 걸쳐 48개 업체가 선정됐다. 그리고 여기에는 인쇄분야에서는 유일하게 라벨인쇄기를 만드는 서울정기가 포함돼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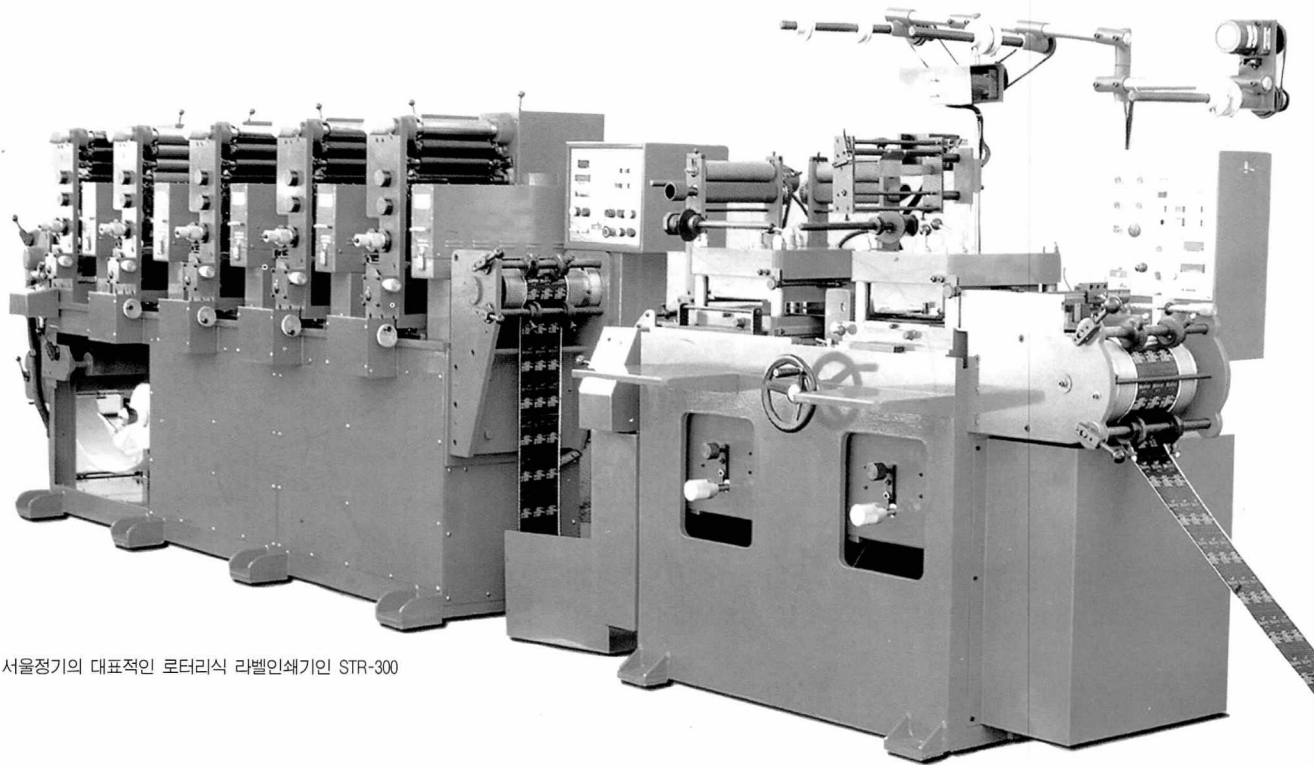
서울정기의 핵심 기술자이자 경영자인 전영우 사장은 성동공고를 나와 관련업계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지난 1989년 서울 성동구 홍익동에 회사를 설립,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라벨인쇄기 만들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 사장은 지난 1996년 라벨인쇄기가 평압식에서 로터리식 중심으로 변화된다고 판단하고 이 때부터 로터리식 라벨인쇄기 개발에 나섰다. 처음부터 국내 기술로 개발하겠다고 나선 전 사장은 외국 라벨인쇄기의 장점을 파악해 국내 실정에 맞는 제품 만들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당시 설계를 위한 캐드를 할 줄 몰랐던 전 사장은 대학생에게 일주일에 두 번 개인교습을 받으면서 직접 설계를 하기도 했다. 전 사장은 이 당시의 추억을 떠올리며 “필요에 의해 캐드를 배우기는 했지만 초기에는 서툴러서 설계도가 완성되지 않아 작업이 중단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불태운 지 2년 만에 인쇄부를 완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동화를 위한 전자적인 시스템이 필요했기 때문에 관련 업체와 기술제휴를 해서 다시 작업에 들어간 전 사장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지난 2001년 개발을 마치고 제1호기를 납품했다.

“공교롭게도 기계 설치를 완료하고 시험가동을 한 날이 8월15일 광복절이었다. 시험가동에서 만족한 결과물이 나와 우리 직원들과 인쇄사 직원들이 함께 만세를 불렀다. 정말 잊지 못할 날이었다”고 그 때를 회상했다.

이처럼 자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전 사장은 당연히 탄탄대로를 걸었어야 정상인데 제2호기를 주문 받고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그것은 1호기와 달리 사이즈가 커지고 고객이 원하는 사양이 많이 추가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2호기는 7월에 주문을 받아 12월에 납품키로 했는데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인쇄기를 만들다보니 2002년 10월이 되어서야 납품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시간과 경비가 투입돼 납품을 하고서도 손해를 보는 꼴이 되었다.



◆ 서울정기의 대표적인 로터리식 라벨인쇄기인 STR-300

“2호기를 만들면서 너무 고생을 해서 다시는 안 만들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완성하고 나니 감회가 새로웠다. 그래서 납품하기 전에 전문 사진사를 불러 사진도 찍었다. 먼 훗날 개인 타임캡슐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보관할 예정이다”라고 말해 2호기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가 있었다.

1호기와 2호기가 전혀 다른 형태와 기능으로 개발돼 경제적인 어려움이 뒤따랐는데 제3호기 역시 새로운 사양으로 주문을 받았다. 원래 기계를 개발하고 같은 모델을 계속 생산해야 돈을 벌고 또한 재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서울정기처럼 개발만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3호기도 새로운 사양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게다가 외국에서 주문을 받은 것이라 국내에서는 보지도 못한 새로운 사양이어서 정보수집에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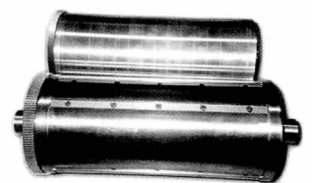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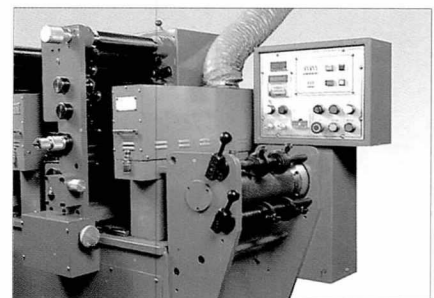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정말 재미있는 일이다. 개인적으로 개발에 대한 욕심이 크기 때문에 어려워도 견딜만 하지만 직원들이나 가족들에게 풍족하게 대우해 주지 못하는 것은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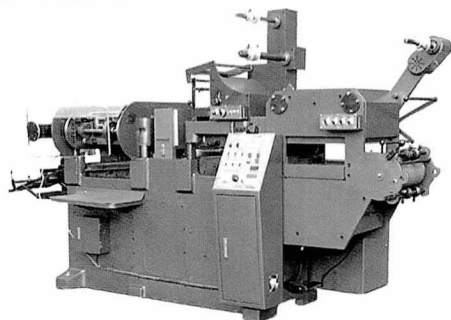
전 사장은 또한 일체 라벨인쇄기가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부품이라도 국산으로 대체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실린더와 마그네틱 실린더를 개발, 보급하고 있어 수입 대체 효과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프셋인쇄기 생산뿐만이 아니라 관련 부품도 개발이 안 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라벨인쇄기만이라도 국산화하고 주요 부품도 국산화해야 된다”라며 라벨인쇄기 국산화에 대한 열의를 보였으며 “일체 라벨인쇄기에 들어가는 실린더와 마그네틱 실린더도 국산화해 보급하고 있다. 사용 업체들로부터 기술을 인정 받고 있고 앞으로도 실린더 이외의 부품들도 점차 국산화해 나갈 예정이며 거꾸로 일본으로의 역수출도 계획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요즘에는 플렉소 라벨인쇄기에 관심을 갖고 개발에 여념이 없다. 그래서 시간이 나는 대로 연구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사장은 기술을 개발하고 전수하여 라벨인쇄기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 최신형 로터리식 라벨인쇄기(2호기)
 ▼ 평압식 라벨인쇄기 SU-4530LTP

“이 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기술이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기술축적을 해서 기업이 영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분야만큼이라도 한국이 세계 제일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정기라고 상호를 정한 이유도 하이텔베르그처럼 지명을 상호로 사용해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어나가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귀뜸해 주었다.

사업을 해 나가면서 애로사항이나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느냐하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만 정부에서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기계개발자로서 한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문화된 기계산업별 단지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품이나 소재 등을 빨리 구입할 수 있게 된다면 시간절약, 물류비절감, 교통문제 해결 등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정기가 처음 생겼을 당시 회사 근처에는 부품이나 소재 등을 판매하는 기계 관련 업체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얼마 남아있지 않아 멀리서 조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원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으며 정보교류나 기술교류도 쉽지 않다고 한다.

전 사장은 정보수집이나 정보교류에도 많은 관심이 있다.

“앞으로 라벨정보산업협회 등에도 가입해 정보나 기술을 교환할 생각이며 해외 전시회도 참관해 해외 정보도 수집할 예정이다. 그리고 서울정기가 좀 더 기술력을 인정받는다면 해외 전시회 참가와 본격적인 수출로 라벨인쇄기 전문업체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국내 라벨인쇄기 시장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제를 상대로 한 경쟁에서 서울정기가 얼마만큼 시장점유율을 높일지, 그리고 해외 시장을 얼마만큼 개척할지 전영우 사장에게 기대해 본다.

〈윤재호 부장〉

서울정기의 핵심 기술자이자 경영자인 전영우 사장은 “라벨 인쇄기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기술이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기술축적을 해서 기업이 영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 제일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전영우 사장